

보건복지국

I . 일반현황

II .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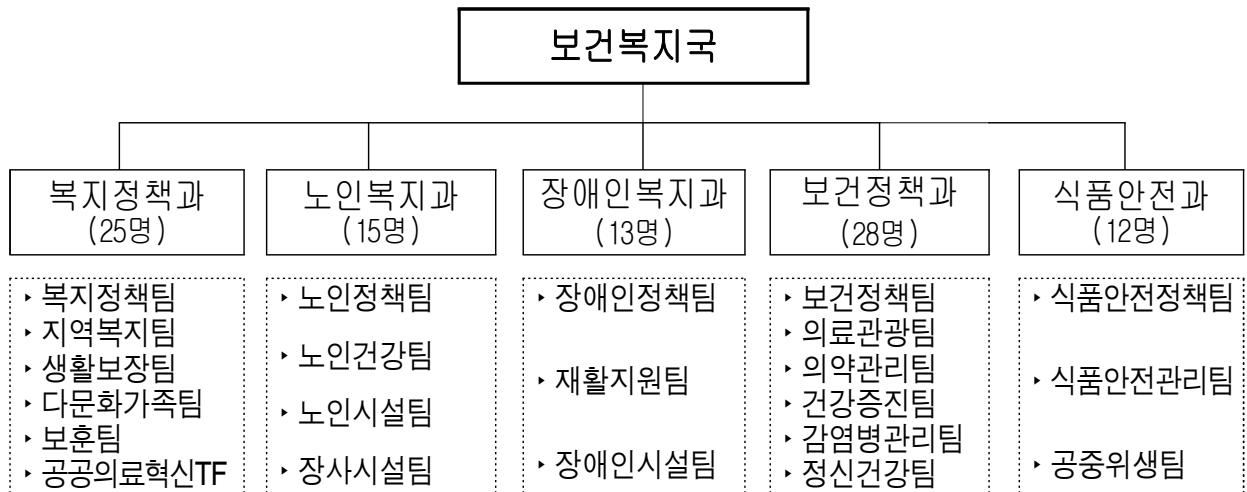
III .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I. 일 반 현 황

① 보건복지국의 기능

- 복지사각계층 발굴·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향상 및 식품안전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

② 조직 및 인력 : 5과 21팀 1TF(총 93명)



※ 출자·출연기관 : 대전복지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③ 2019년 예산현황 : 총 1조 2,660억원(시 전체예산의 26.6%)

- (세 입) 일반회계 6,245억원, 특별회계 2,555억원
- (세 출) 일반회계 1조 105억원, 특별회계 2,555억원

보유기금 2종 495억원 / 재해구호 403억원, 식품진흥 56억원

④ 복지시설 현황

- 총 699개 시설 / 생활시설 284개소, 이용시설 415개소

※ 기타시설 : 노인교실 15개소, 경로당 817개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21개소 등

Ⅱ.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8년에는

공공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제공, 복지안전망 구축, 계층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2018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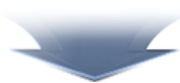
- 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맞춤형 복지일자리 제공
 - ▶ 기초생활보장 55,761명, 기초연금 121,638명, 장애인연금 10,463명
 - ▶ 노인 14,040개, 장애인·활동보조 3,755개 등 29,273개 일자리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 의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대전의료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4월)
 - ▶ 장애아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선정(7월)
 - 돌봄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 ▶ 지역장애인보건센터 운영(1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1개소)
 - ▶ 치매안심센터 개소(구별 1개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12,731명)
 - 의료관광 활성화 및 식품위생 강화
 - ▶ 의료관광객 유치(1만명), 외식업소 경영컨설팅(20개소)
- ※ (수상현황 5건)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최우수), 장애인복지수준(전국1위), 노인일자리평가(최우수), 국가결핵관리평가(우수)

2019년에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영역 확대 및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 보장

정 책 환 경

- ▶ 정부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등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기조
- ▶ 복지체계 전환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



2019 정 책 방 향

- ▶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 시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조성
-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로 자립 지원 강화
- ▶ 식품 안전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Ⅲ.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2.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3.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시민건강권 확보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5.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

1.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초생활 보장으로 으뜸 복지도시 구현
 - ◇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①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노숙인 최저생활 보장
 -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의 주거·급식·의료 제공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일자리 확대로 자립 지원 강화
 - － 노인(16천개), 장애인(4천개), 자활근로(1.8천개) 등 31천개
- 시민 참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이 넘치는 이웃사랑 실천
 - － 기부식품 나눔행사 개최, 푸드뱅크(13개소) 및 푸드마켓(8개소) 활성화

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동 중심 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역량 제고
 -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 발굴·지원, 컨설팅·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용역, 대전형 돌봄모델(커뮤니티케어) 개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 정액급식비 신설(3만원), 처우가 열악한 시설 명절휴가비 지원(100만원) 등
- 아동 심리지원, 장애가정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25개 사업, 2만명)

③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구현

- 결혼이민자 장기정착 지원을 통한 안정된 가족관계 형성
 -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사례관리 강화(사례관리사 1명→2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자녀 언어발달 지원(지도사 10명), 어울려 소통하는 화합한마당 개최(9월)
-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조성
 - － 정착도우미 운영(50명), 가족 힐링캠프 등 지역적응 프로그램 운영

④ 따뜻한 보훈복지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보훈대상자 위문·격려 및 명예를 높이는 선양사업 추진
 - － 국가유공자 위문금액 인상(독립유공자 5→10만원, 국가유공자 3→5만원)
-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훈복지 지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3만원), 의료비 지원(90백만원)
- 보훈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 － 보훈시설 기능보강(창틀 방수공사 등), 보훈단체 지원(13개소)

⑤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사업 개요

- 병원종류 :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
- 예 정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 사업규모 : 약 300병상 / 1,315억원(BTL사업)

-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19. 4월 예정)
- 대전의료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립 절차 이행('19. 4월 이후)
 - － BTL대상사업 신청, 한도액 요구서 제출,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

2.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건전한 여가문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 효문화 확산과 어르신 사회활동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①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어르신 생활안정 도모
 - － '19. 4월부터 20% 인상(단독가구 25→30만원, 부부가구 40→48만원)
-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 어린이 안전지킴이 등 공공 사회봉사 일자리 16천개 창출 지원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활성화로 예비노년층 지원 강화
 - － 직업교육, 인생설계 상담,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중장년 은퇴자 전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추진
 - － 타당성조사 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

②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 치매환자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립 치매요양원 건립
 - － 건립대상지 선정, 실시계획 용역 추진 / 140인 규모, 사업비 76억원
-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을 통한 체계적 노인복지 기반 확충
 - － 갈마 노인복지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등 2개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3,447명, 414억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안정적 노인여가복지 증진
 - － 노인복지관(7개소), 경로당(8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19개소) 등 운영 지원

3 효문화 확산 및 건강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

- 효문화진흥원 운영을 통한 세대간 공감대 형성과 효 가치 확산
 - － 전시체험관 운영, 교육, 홍보 등 다양성 있는 효문화 시책 추진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보호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상담전화, 피해노인지원, 예방교육 등 실시
-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 건강·교양·취미·동아리운영 등 프로그램 내실 운영

4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강화

-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
 - － 방문·전화, 응급안전 대책장비 설치 등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대비
- 저소득층 노인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 경로목욕권(11,745명), 유산균음료지원(3,731명), 노인건강진단(500명) 등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 － 무료급식(26개소, 2,900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식사배달(900명)

5 장사시설 개선으로 선진 장사문화 조성

- 증가하는 장사수요 대처를 위해 시설 확충사업 추진
 - － 자연장지 확충(3,000기), 대전추모공원 제2주차장(285면) 조성 등
- 쾌적하고 안전한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
 - － 엘리베이터 설치(2대), 시설물 개보수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도모
- 장례절차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장사종합단지 조성 추진
 - (그동안) 단지조성 검토보고('18. 2.) 및 용역을 통한 조성후보지 선정('18. 11.)
 - (향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수렴('19.2.~10.), 종합계획 수립('19. 12.)

3.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

1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 － 상시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독거장애인 / 10명, 500백만원
-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기본적 생활안정 도모
 - － 만18세~64세 저소득 장애인 / 11,139명, 31,485백만원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 － 장애인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 9개 분야 / 902명, 10,729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
 -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 24개소 640명

2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

- 다양화된 장애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 －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 후 장애정도(심한·심하지않은)에 따라 지원('19. 7.)
- 체계적 발달장애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 공공후견인, 복지서비스 연계, 권리구제 등 지원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운영
 - － 학대피해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심리상담과 사후관리
- 민·관 협력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한 취업권리 보장
 - － 공공기관 고용률 5% 목표,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취업정보 공유 및 제공

③ 여성장애인이 편리한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여성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 자녀양육, 가사활동, 산전·산후조리 등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지원
 - － 컴퓨터, 검정고시 등 교육과정 운영, 사회참여·체험 프로그램 등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 － 직업능력 및 교양교육 등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자립 도모

④ 장애아동 의료 재활환경 개선 및 사회참여 기반 마련

- 장애아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 － 설계공모('19.5월), 기본·실시설계('19.10월), 조례제정('19.12월)
- 소아 중증장애인 조기 재활치료를 위한 낮 병동 내실 운영
 - －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 충남대 등 4개소, 70병상
- 발달장애아동의 장애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 － 시각, 청각, 언어, 자폐 등 만 18세 미만 장애아 / 2,000명, 4,317백만원

⑤ 시설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시설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의지 고취
 - －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내 멘토링 등 18개 프로그램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운영 및 거주인 인권보호 강화
 - － 체험홈(7개소)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 도모
 - － 거주시설 개보수(6개소)·LED 교체(15개소),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3개소)

4. 시민건강권 확보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강증진 도모

◇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로 시민 건강안전망 확충

①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내실 운영
 - － 치매 초기상담·등록, 조기검진, 1:1사례관리 등 / 구별 1개소
- 중독·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 자살 예방사업 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의료관광객 유치
 - － 해외설명회 개최(6회), 의료+관광+쇼핑 등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
- 정부기관 국비확보를 통한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 － 유성온천 관광테마거리 조성(문체부, 34억원),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19. 3.)

②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시민 건강안전망 확충

- 위급 상황시 시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강화
 - － 심폐소생술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및 365일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 영유아 성장 발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든 출산가정 대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 24시간 감염병 비상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시민건강권 확보
 - － 예방접종, 조기검진, 질병발생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등

5.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

- ◇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품격도시 위상 제고
 - ◇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강한 먹거리 확보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1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위생문화 체험행사 개최

- 위생적으로 우수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 － 모범음식점, 지자체 인증음식점 등 희망업소 대상 평가·지정(250개소)
- 지역 전통먹거리 계승 및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
 - － 3대·30년 전통업소 지정(35개소) 및 외식업소 경영안정 컨설팅(20개소)
- 나트륨·당류 줄이기 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운영(200개소)
- 음식문화체험 박람회 및 전국미용경연대회 개최('19. 10.)

2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위생관리 강화

- 효율적인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 － 연중 비상체계 유지 및 식재료공급업체 등「집중관리업소」지정·관리(1,731개소)
- 성수식품 및 위생취약 우려식품 등 선제적 안전관리
 - － 시기별·계절별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20회), 기초 위생관리 점검(수시)
-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8,600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258명)

3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수준 제고
 - － 이용업·미용업(5,111개소) 평가, 숙박업·목욕업 등 점검·교육(7,497개소)
-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위생용품제조업 정기점검, 수입 위생용품 등 수거·검사(80건)
-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 식품안전 관리
 - －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5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297개소)

